

연중 제24주일

제 1 독서 : 이사 50, 5-9a

제 2 독서 : 야고 2, 14-18

복 음 : 마르 8, 27-35

췌정 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르 8, 34).

강론

“예수”

양재철 신부 / 함열 천주교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신앙인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예수께 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신앙고백이며,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사람의 다양한 대답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뜻하지 않게 자신의 십자가길과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메시아)의 길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밝히고 계시고, 이 길이 결국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메시아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예수의 이같은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취한 태도는 바로 우리들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최종적으로 베드로와 우리 자신을 십자가와 죽음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예수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와 지극한 인간 사랑(인류구원) 때문에 십자가길과 죽음의 삶을 기꺼이 택했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이기주의를 벗어나 버리고 이웃 사랑의 길을 택할 때 예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바로 자기 부정, 십자가길의 선택으로 나타나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길(삶)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하느님의 은총)은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

“청소년 걱정”

고등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흉하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고등학생의 정신연령이 열서너살 정도라고 해서 걱정이 필요없달 이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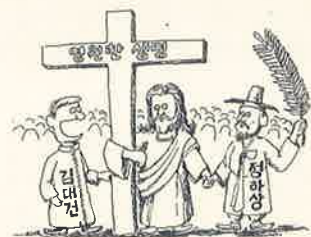
가을이 되고 입시철을 피부로 싸늘하게 벌써부터 느낄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누렇게 뜬 수험생들과 툴툴이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고 있는 교사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된다(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푸석한 얼굴로).

1·2학년생이라고 예외는 없어서 열시 열한시까지 찬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학교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 ‘야자’(야간자율학습을 학교에서 부르는 말)라는 걸 한다. 숙제는 집에 가서 할 여가도 여력도 없어서 이튿날 쉬는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교과선생님 눈을 피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똑바로 된 ‘교양서적’(사실 이 말이 현재 학교 사회에서는 얼마나 낡아진 자가 가까이 하는 불량서적으로 대우받는지 세상사람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한 권 제대로 읽는 학생이 드물고, 그럴수록 우리 사회의 장래가 한숨 쉬게 하는 지경에 빠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입시문제, 교육문제를 남북통일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이 엉뚱한 일이라면 할 말이 없어지지만 이 사회의 온갖 파행적인 현상들의 뿌리가 분단 현실에서 오는 것이 분명하다는 역사인식에서 볼 때, 부도덕한 정권의 창출책임이 부도덕한 또는 몽매한 국민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그러니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워진 이저런 ‘원죄’(더 마땅한 말이 별로 없어 보이는 현실이다)를 놓고 교사들만 지쳐 떨어지라는 억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좀 걱정해보고 복음적 개선을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 [췌]

췌정이 산책



103위 성인들이여! 우리를...

“잊혀진 순교자들”

마음이 건조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라. 삶이 고독하거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내려다보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예수의 약속이 잊지 않은가. 신앙인은 이러한 역사적 비극성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생명력으로 머무신다. 이러한 예수의 비극성은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믿는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사건이다.

예수의 살신성에(殺身成愛)는 한국천주교회사 안에서 신도들에 의하여 재현되었는데 순교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순교자는 조선왕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중에도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 신도들이 신앙 때문에 반국가적 반동으로 처형되었고, 그들이 신앙 때문에 학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지 않다.

1961년 전주교구는 한국교구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교우들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수가 69명에 이르렀다(물론 완전한 조사는 아니었던 듯하다). 희생자 중 많은 교우들이 학살당하기 전 수차에 걸쳐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끝까지 거부했다. 어느 가정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총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총살을 집행하기 전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청하고는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바친 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총살을 당했다.

전주교구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교우들을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아 죽어간 사람들로 여겼다. 당시 희생된 교우들을 조사한 교구장의 공한은(1961. 5.31.) 이렇게 말했다.

“(전략) 금번 6·25를 기하여 본 조사를 늦으나마 하게 됐음은 이들의 거룩한 정신을 찾아 현양하고 신도들에게 순교정신을 양양시키고자 함과 장차 이들이 복자품에 오르고 앉고는 불문에 부치고서, 우선 살아 있는 증인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에 가능한 세밀히 조사하여 장차 이 조서가 중요한 의의를 지닐 때에 대비코자 하오니, 각 본당과 공소에 널리 알려 빠짐없는 조사 보고를 무망하나이다.”

또한 1969년에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각 교구별로 한국전쟁의 희생자들을 조사했다. 그것은 순교자 현양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 때(1969.7.19) 결의된 것을 1969년 10월에 개최된 주교회의에서 인준한 사항이었다. 조사범위는 6·25를 전후하여 남북한에서 순교한 성직자와 수도자와 신도들로써,



그들의 순교한 목격담을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는 정리해서 출판하고, 그 자료는 장차의 시복자료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전주교구가 겪은 수난은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전주에서 활동하던 살트르 바오로수녀회 수녀들이 「경향잡지」 1956년 1월호부터 1957년 5월호까지 연재한 바 있고, 개인의 기록으로는 부안 본당 등룡리 공소의 안복동(바오로) 씨가 「인공일기」라는 표제로 등룡리 공소가 겪었던 6·25의 참상을 체험자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아마 어디엔가 또 다른 기록이 분명 있을 법하다.

한국전쟁에 희생된 순교자들도 그들의 순교가 분명한 이상 어떤 양상으로든지 마땅히 공경되어야 한다. 어찌 조선왕조 때 희생된 순교자들만 현양하고 한국전쟁의 순교자들은 도외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순교자들의 거주지가 예외없이 신앙의 뿌리깊은 공소였음을 기억할 때, 그 공소들은 역사의 기념지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용서함이 믿는 이의 본분이고 화해가 시대의 요청이더라도 한국전쟁에 희생된 순교자의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김진소 신부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 9월 3회, 10월 3회
* 장소: 제주시 '형제의 집' 피정센터(한국순교복자수도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중부 (0431) 52-8559

“가구의 명가”
장인가구 (민속공예)
옥돌칠기가구
남부지점: 전주시 중앙동2가 가구거리
북부지점: 전주시 태평동1가 전주중앙상가(층6)호2층6호
TEL. 남부 88-9253 상가1층 254-9525
상가2층 76-9151 하치동 82-5086
김성수·김미남(루시아)

정성을 다하는 조림식의 선구자
경일 조림식 건축
재무부령 254호 허가업체
본사73-1611 FAX75-0161 출장소85-1023
김종진(스테파노) 김해선(레지미오)
김종선(그레고리오) 김영애(루비나)

췁 관

“치명자산에 오르는 사람들”

해발 300m의 전주 승암산 산정에는 동정부부로 치명한 유충철(요한)과 이순이(루갈다)의 묘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치명자산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치명한 유항검(아우구스티노)과 그의 가족 6분이 묻혀 있는 곳이다. 호남의 사도였던 유항검, 떡과 술을 빚기 위한 찹쌀배미가 53마지기나 되었다는 거부, 그는 전 재산과 혈통을 족보째 고스란히 하느님께 바친 분이다.

머리 돌 곳조차 없던 이들 가족의 유해는 1912년 당시 전동 본당신부였던 보두네 신부와 신자들에 의해 이곳 승암산에 옮겨졌고, 이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치명자산이라 불렀다.

치명자산에 오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1912년 당시 신자들이 하느님께 바쳐진 유항검 가족의 거룩함을 높이 받들고, 산을 오르는 고통으로나마 치명의 고통을 체험하며, 순교의 정신으로 호남의 온 대지가 다스려지기를 기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숨을 헐떡이며 이곳 치명자산을 순례한다.

순교자들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십리 밖에서도 들릴 것 같은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할머니, 세상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목주기도를 바치며 오르는 자매들, 루갈다의 신심을 본받고, 유항검 가족들이 하루빨리 시복시성되고 치명자산이 성역화되기를 기도하는 루갈다회,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 물을 이어 나르고, 순교정신으로 숨어 봉사하는 성지 안내자들(명자회-치명자의 약칭), 치명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맨발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온몸으로 순교의 삶을 증거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자꾸만 타락해가는 현실을 보면서 웬지 이분들처럼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기도하고 희생하는 삶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빛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 구 소 식

※ 윤지충(바오로), 권상연(야고보) 순교200주년 기념미사: 9월20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치명자산, 집전-이병호 주교.

1. 사제 평의회: 9월17일(화) 오전10시.
 2. 참사회: 9월19일(목) 오후2시.
 3. 전북대 가톨릭 학생회 창립30주년 기념행사: 9월26일-29일 캠퍼스.
 4.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1층.
 5. 태아생명 보호미사: 9월16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85-5098.
 6. 사무장 구함: 영세 후 3년 이상된 병역 필한 자, 문의-호성동 성당 (0652)78-1140.
 7. 주소 변경: 김요한 신부-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호 화랑대 천주교회 (02)972-9686, 윤양호 신부-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1000-31 군인회관 (062)33-6192, 최상범 신부-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우체국 사서함1호 층의 천주교회 (0343)42-9611.
- ※ 축! 영명: 21일(성마태오) 황인규, 김진석, 유종환, 김진화, 박종택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회: 9월22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일터(2) 서류의 복사량을 줄입니다.

직장에서 복사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복사물에서 낭비되는 종이의 양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 외의 복사를 줄이고 복사되지 않은 뒷면을 재사용,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의 습관을 기릅니다.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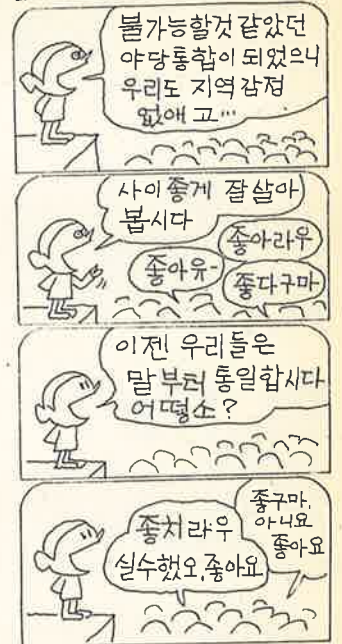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7-1
☎ 841-2496, 855-8653

사 넬 안 경 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요심이 (945) 김병오



여사무원 채용

자격: 고졸이상(상고)
영세한 지 3년 이상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통,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본당
신부 추천서, 영세증명서
효자동 천주교회 223-3821

서신동 성당 바자회

일시: 91년10월17~21일까지
장소: 숲정이 성당
내용: 생필품, 농수산물, 음식,
차, 세라믹요와 자기
※ 젓갈류 도·소매 합니다.

구 훈

성명: 하헌철(요한 레오나르도)
생년월일: 1956.10.9(만35세)
본인은 18살에 회사에 근무중
오른손을 다쳐 손가락 네 개를 잃
었습니다. 늦게나마 참신양 안에
반려자를 찾습니다.
연락처: 성당사무실 84-3222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송남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축, 영세, 주님의 자녀되심을 축하합니다.

1. 자모회: 오늘 오전 10시(간부선출) 2.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년연합회 대청소: 오늘 오후 4시. 월례회: 저녁미사 후
4. 성화회: 16일(월) 저녁 6시.
5. 성모회: 18일(수) 오전 11시
6. 구역반장회의: 19일(목) 오전 11시.
7. 섬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8. 레지오를 위한 특별비밀헌금: 50만원(익명회-감사합니다).
9. 추석합동위령미사접수-21일까지.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1,776,880원 □ 교무금: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택

※ 경축! 본당의날 및 건진성사

1. 신일, 우성A.P.T로 이사오신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추석합동 위령미사 접수: 21일까지, 미사는 주일과 같습니다.
2. 꾸리아, 올드레아(22일): 29일로 연기합니다.
3. 고도스 후원회 월례미사: 16일 전 10시 30분, 센터 1층 강당.
4. 불우이웃 가정돕기 2차헌금: (22일) 다음주 일
5. 성령 기도회: 17일 저녁미사 후
6. 가정미사: 17일 후 8시. 정형석(우성A.P.T 4동 203호)
7. 회의: 성모회-17일 저녁미사 후
8. 예비자 교리: 매주일-공식미사 후, 매주수요일-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709,090원 □ 교무금: 330,500원

1. 생활성가발표: 오늘 공식미사 중(청년회)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12일 오전 10시
4. 예비자교리: 매주 오전 9시
5. 추석 명절 대축일(22일):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6. 성당청소(21일):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금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김병화씨부부 봉헌-양현숙씨가족
차주전례 해설-정승훈 독서-박노환씨부부 봉헌-이승로씨가족
- 지난주 봉헌금: 559,250원 □ 교무금: 1,756,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추석합동위령미사: 22일 오전 8:30, 10:30, 예물접수 하세요
2. 성가정, 청년회: 공식미사 후
3. 성서읽기: II 고린토 7장~13장
4. 청소년사: 평화의오후Pr.
5. 금주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남현준 ②장경자 봉헌-한동욱, 남창덕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이옥동 ②송정자 봉헌-박복욱, 강순용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33,200원 □ 교무금: 159,000원

1. 자모회: 주일미사 후
2. 성지순례: 29일(일). 장소-해미성지. 회비-1만원. 준비물-도시락, 미사도구(오늘까지 접수 해주십시오)
3. 반모임: 18일(수) 오전 10시 30분-화산1가.
4. 추석합동미사 예물접수: 21일(토)까지 접수 해주십시오.
5. 본당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6. 청소년사: 동정 마리아Pr.
7.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강봉자·권남진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노옥임·강정식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황수석

※ 9연중 제24주일!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9월 29일(일) 오후 2시
2. 모임: ①전례부-9월 19일(목) 오후 8시
3. 알림: ①영세식-오늘 공식미사 중에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②추석명절미사시간-9월 22일(일) 오전 11시에 있고 새벽미사와 저녁미사는 없음(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봉성체-9월 18일(수)
④추석합동위령미사예물-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단, 9월 21일까지) 선영님들의 정성어린 봉헌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06,650원 □ 교무금: 595,000원

1. "축" 본당의날: 오늘은 기쁜마음을 서로 나눌시다. 제1부-미사(11시) 제2부-나눔의 시간(11시미사 후. 제3부-사목의시간
2. "축" 열명: 본당신부님(유마태오) 9월 21일(본당 선부님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추석합동위령미사: 세대별로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하드립니다.
4.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영세한 72명의 새가족에게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전주어린이 체육대회 효자동이 1등!
5. 모임안내: 모니카회 테레사회-수요일 10:30
7. 92년도 부활반 예비자모집: ①일 9:30 ②목 7:30 ③금 10:40
8.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9. 성지순례: 10월 3(목) 사무실에 접수
- 지난주 봉헌금: 1,331,720원 □ 교무금: 1,26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효자동**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추석명절미사: 다음주 일 6:00, 10:30 (미사예물접수-사무실)
2. 공동체묵상회(M.B.W)기초과정-24일(화)~27일(금)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회비 3,000원(전입하신 교우들은 빠짐없이 참여바랍니다)
3. 예비자교리안내(10월시작반). 직장인반-10월 3일 저녁 8시, 주부반-금요일 오전 11시, 학생반-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반-오전 9시
4. 사목회: 19일(목) 오후 8시
5. 예비자 집중교리: 24일~27일(통신교리이수자 참석요망)
6. 건진교리신청서 제출바랍니다
7. 청소년사: 금호APT구역(토요일 11시 30분 시작)
- 지난주 봉헌금: 536,750원 □ 교무금: 595,000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부부신자환영식: 16(월) 7:30 제일, 광진, 장승1,2,3반
3. 9월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9월 20일 오후 10시~21 오전 4:30 초청강사: 수원 연베드로 회장 4. 두현공소미사(8시) 8시
5. 추석합동위령미사예물 접수합니다
6. 첫영성체교리시작: 16(월)부터
7. 새신자안내: 17(화) 저녁 7시. 차주모임-반석회, 요셉회. 신축 헌금봉헌액-500,000원. 폐품충수입-924,650원.
- 금주전례해설-김광년 독서①김동기 ②이군자 기도①박동욱 ②이정순 차주전례해설-원창수 독서①고영표 ②박준화 기도①황영철 ②전선자
- 지난주 봉헌금: 906,670원 □ 교무금: 558,000원